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청년농 농지지원사업 소통간담회 개최

윤 추홍식 | 승인 2024.01.31 14:43

청년농 의견수렴 및 농지지원사업 강화 방안 모색

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(지사장 이돈문)는 지난 30일 청년농 농지지원사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는 성주군 내 읍면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인 성주군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, 청년농 대상 농지지원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.

간담회에 참가한 청년농업인들은 농지은행을 통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아 보리, 콩 및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으로서 "농지은행의 지원을 바탕으로 농지를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다"라며 "기반 없이 농사를 시작하는 많은 청년농에게 농지은행

지원사업은 영농활동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계기가 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성주지사는 농지은행의 '맞춤형농지지원사업' 및 '농지임대수탁사업'을 통해 지난해 청년농가에 74.2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,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추홍식기자 chhs@idaegu.co.kr

저작권자 ©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추홍식